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통역 못 구해 포기 '황당'

나주시 '지계차 인권 유린' 계기
3개 항목 부처별 조사 확정했지만
겉핥기식 조사 지적에 잠정 연기
시 "전남도 조사할 때 적극 참여"

나주시가 '벽돌공장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사건' <광주일보 7월 24일자 7면>을 계기로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부산을 떨더니 '통역을 못 구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음만 앞세워 꼼꼼한 사전 조사 없이 성급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는 지난달 29일까지 3개 분야로 나눠 외국인노동자 노동 인권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나, 조사 일정을 무기한 중지했다.

앞서 나주시는 지난 7월 25일 부시장 주재로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유린사건과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한 뒤 대대적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 내 외국인노동자들을 노동자·유학생·계절근로자로 분류한 뒤 ▲외국인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외국인 유학생 실태조사 ▲계절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을 각각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노동자 이주노동자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지역 내 이주노동자 현황 등을 고려해 1차(125개소 806명), 2차(358개소)로 나눠 각각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 조사에서는 일자리경제를 중심으로 주거 현황 및 임금 체불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나주시는 이와 함께 비슷한 시기(7월 28일-8월 14일) 지역 2개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및 실태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유학생 실태조사는 교육지원과가 주도해 거주, 시간제 일자리 임금 체불 현황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을 세웠다.

아울러 농업정책과에서는 148개 농가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준수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하지만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다. 애초 노동자들의 의견을 총체하게 들으

려면 외국인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야 하는데도, 통역도 구하지 않은 채 외국인노동자가 근무하는 기업을 찾아가 관리 현황을 점검하려는 방식으로 진행했었기 때문이다.

나주시측은 실태조사 전 이뤄진 노사민정협의회에 참석한 시의원의 "통역 인력 없이 수박겉핥기 식으로 한다면 기업 실태조사에만 그치지 않겠나"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실태조사와 계절노동자 실태조사는 진행했다는 게 나주시 설명이다. 유학생 실태조사는 학교측이 주도, 통역이 필요없었고 계절노동자는 다른 과에서 통역인원을 데리고 갔다는 것.

결국,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만 엇된 일이 됐는데, 9개교 9명을 갖춘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와의 협력 방안조차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태 조사를 시작하려는데 하루 아침에 통역을 구할 수도 없는 처지라 일단은 조사 일정을 멈추게 됐다"며 "전남도에서 조사 일정이 나오면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전남도에서 이달 외국인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한 점도 반영했다고 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유린 사건의 심각한 점을 알고 실태조사를 계획하고도 정작 통역 확보 여부 등도 파악하지 못한 허술한 준비 과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장 측 답변을 듣는 수준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조사인 점을 감안하지 않고 평소 기업 대상 설문조사로 여겨 꼼꼼히 실효성을 높일 조사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주시는 고민대학 유학생(2334명), 계절근로자(148농가·600여명)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성과도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주시 관계자는 "오는 10월 26일에는 통역사와 공인노무상담사를 대동해 나주시보건소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의료지원서비스와 함께 노무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노동부, 광주·전남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집중감독

노동부가 광주·전남 중심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에 들어간다.

고용노동부는 4일부터 4주간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 가운데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선별, 선제적 점검 및 감독을 벌여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울 상반기 전국 151곳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데 이어 하반기 광주·전남을 비롯한 농촌 지역 45개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진

행한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6월 기준 외국인 체불액은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직장내 괴롭힘, 성폭력·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지도하고 사업장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서지를 활용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면담 등을 별도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바이바이~ 플라스틱 제17회 자원순환의 날(9월 6일)을 맞아 3일 광주시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바이바이 플라스틱' 실천 활동 수료식에서 어린이들이 페플라스틱을 활용해 만든 '2025 지구'와 '2035 지구'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IMS 대표 구속영장 기각...김전희특검 수사 차질 빛나

특검팀, 영장 재청구 방침

김전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경민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조 대표, IMS모빌리티 모재용 경영지원실 이사, 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대표 등에 대한 신병 확보가 불발되면서 '집사 게이트'를 겨냥한 특검 수사 동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모 이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민 대표는 특정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모두 '집사 게이트'에 직접 등장하거나 그 수사 과정에서 위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 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자본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톡,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 측은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사법 리스크나 경영 현안을 안고 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이나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

다고 의심한다.

IMS가 유치한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김씨로부터 양도받아 보유한 IMS 구조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병회사로 알려져 있다. 김씨 배우자 정모 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다.

조 대표와 민 대표는 투자 유치와 구조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조 대표가 이 돈을 회사의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했고 민 대표도 이를 알았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에게는 35억원 상당의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어서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총경이 직장 내 갑질" 의혹 제기

당사자 부인...본청에 감찰조사 요청

전남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직장 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2일 성명을 내고 "전남경찰청 소속 A총경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인해 경찰관들이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직원들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해당 총경과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협에 따르면 A 총경은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경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유사한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전남경찰청 총경 갑질 행위' 제목의 글에는 'A 총경이 지난 3월부터 근무하면서 팀장들에게 과도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 '지시 미이행시 막말과 인격모독으로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고 본인 기분에 따라 직원들을 대하

며 안하무인 행동으로 직장 분위기를 해쳤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전남경찰청의 일부 직원들은 최근 경찰청에 A 총경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총경은 "정상적으로 업무 지시를 한 것이며, 욕설을 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진상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경찰청 본청에 감찰 조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A 총경을 직원들로부터 분리 조치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경찰청 감찰조사에 관계자는 "감찰 진행 여부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그린프리미엄 알로에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 ✓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